



이달의 포커스 뉴스

베트남의 2022년 히트 상품, 2023년 유망 상품

- 2023년 건강 관심 증대에 따른 유기농 식품, 스포츠 용품 등이 유행할 것으로 기대

2P

알아두면 유용한 유통·무역업 관련 베트남 법!

33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20
☑	<이임 인터뷰>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안동욱 참사관	22
☑	<팀코리아협의회 동정> .. 코참 회장 이취임식 및 2023년 정기총회	25
☑	<기업탐방> 핀투비 박상순 대표이사	27
☑	<투자> 베트남 부동산 개발의 어려움 및 유의점 전현우 변호사	31
☑	<법률> 알아두면 유용한 유통·무역업 관련 베트남 법 김유호 변호사	33
☑	<통관>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35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라오까이성>	37
☑	<이달의 보고서> RCEP을 활용한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45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6





베트남의 2022년 히트 상품, 2023년 유망 상품

- 2022년 코로나 타격 회복 후 소비자의 트렌드 민감성 급증에 따른 패션 및 펫푸드 시장 등 확대
- 2023년 건강 관심 증대에 따른 유기농 식품, 유제품, 스포츠 용품 등이 유행할 것으로 기대

2022년 베트남의 히트 상품

베트남은 2022년 3월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추구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각종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코로나 이전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워드코로나 기조에서 베트남 9,000만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20~40대는 베트남의 집콕생활 유행을 주도하며 펫 푸드 및 의류 액세서리 등의 트렌드를 이끌었다.

1) 집 지킴이에서 가족으로, 성장하는 펫 푸드 마켓

유로모니터의 "베트남 소비자 생활 방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산층 가구의 가정용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응답자의 68%(전 세계 대상 54%)는 반려동물을 집에서 기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62%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가족의 사랑받는 구성원으로 여겨진다고 응답해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와 놀이기구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등하는 이유를 반증했다.

또한 Pet Fair Asia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Pet Care 산업의 매출액은 약 40억 달러이다. 여기서 베트남은 13%를 차지하여 5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년 1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는 베트남의 반려동물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아시아 국가 펫 시장 성장성>



[자료: 펫 페어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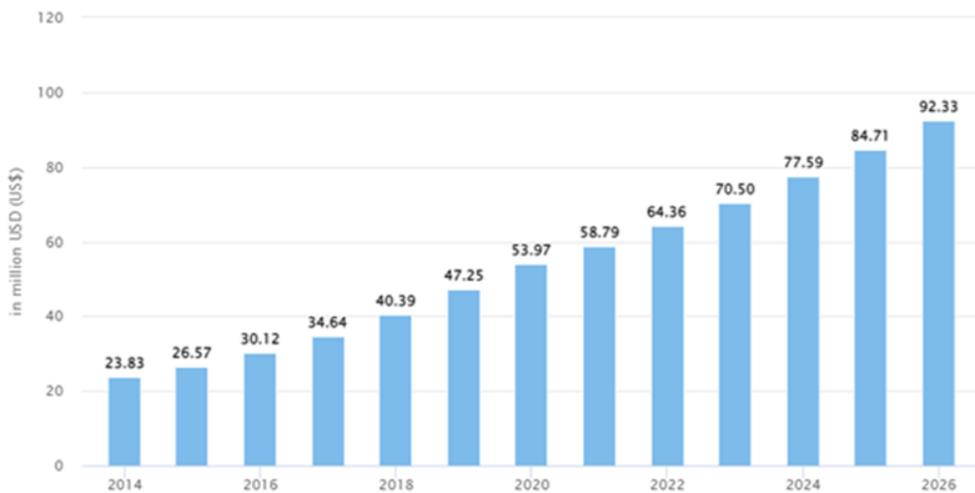


특히나 하노이, 다낭, 호찌민 등 기업이 몰려있는 주요 도심에서 홀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펫 푸드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많이 기르는 개 품종은 푸들, 퍼그, 치와와, 허스키, 알래스카, 골든레트리버, 달마시안 등이며 인기 있는 고양이 품종은 긴털 페르시아 고양이, 짧은털 페르시아 고양이, 터키 고양이, 벙골 고양이 등이다. 최근 베트남 가정에서 반려동물은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경제적 여유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의 관련 푸드 시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사료는 2022년 KOTRA 바이어 연결지원 서비스에서도 한국 기업의 관심을 끌었고 베트남 대형 펫 사료 유통사에도 시장 전망이 긍정적인 품목이다. 베트남 펫 사료 유통업체 A사에 따르면 “2020~2022년 동안 펫 시장은 성장을 거듭했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련된 사료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2022년 한 해 동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몇몇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인기를 끌면서 펫 사료, 간식은 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펫 푸드 마켓 수익성>



[자료: Statista]

베트남 반려동물 사료 부분의 매출은 2022년 6,436만 달러에 달하며, 연간 9.10%(CAGR 2022~2027년) 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트남에서는 InVivo NSA, Smart Heart, Royal Canin과 같은 많은 외국의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들이 최근 베트남 내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자료: 페이스북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페이지 등]



뿐만 아니라 미용, 건강검진 및 치료, 사육, 반려견 돌봄, 반려견 사료 및 용품 판매 등 반려동물 서비스도 점점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있다. 호찌민시에는 펫시티, 펫마트, 사사키 동물병원, 반려동물 파라다이스 등 강아지와 캣 스파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나 동물 전용 병원, 유치원, 커피숍, 옷가게 등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많이 등장해 많은 가족의 동물 애호 심리를 겨냥했다. 또한, 더 높은 가처분 소득, 증가하는 수요, 반려견 및 반려묘 등에서 힐링을 찾으려는 생활 방식이 반려동물 사료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인기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펫 푸드 관련 현지뉴스>



[자료: nhachannuoi.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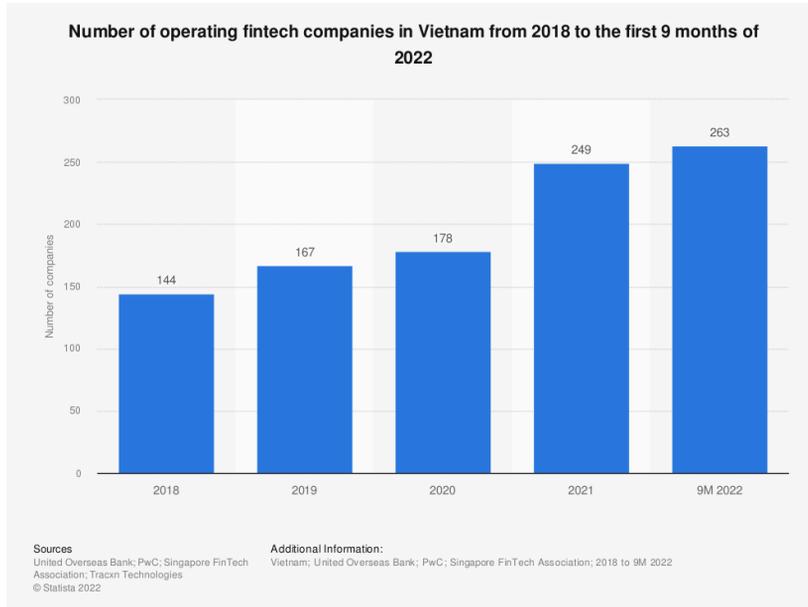
2) 집에서 간편하게 결제, 보편화된 핀테크(FinTech) 서비스

베트남 내 핀테크 기업 수는 최근 10년간 6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나 코로나 기간 비대면 결제 및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했다. 본래 베트남인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티키, 쇼피, 라자다 등의 판매자가 늘고 구매 및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급등에 따른 핀테크 서비스 이용도 일상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ZaloPay, VNpay(QR 결제, VNlife), MOCA(교통수단 그랩 페이), MOMO(교통수단 고젝 페이) 등 전자지갑(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등 2022년에도 인기를 끌었다.



<2018~2022년 베트남 내 핀테크 기업 수> (단위: 개)



[자료: Statista]

United Overseas Bank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핀테크 시장은 1~9월 시장 규모 43억 달러로, 2024년에는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스트란스(Nextrans)에 따르면 베트남 스타트업 시장은 재작년 총 15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 중 핀테크 비중이 26.6%로 벤처캐피털을 주도하는 분야로 대두됐다. 베트남 내 7대 핀테크 기업으로는 VNLife, M_Service, Sky Mavis, Trusting Social, Timo, Finhay, Nano Technologies 등이 있으며 디지털 결제, 블록체인 게임 및 제품 개발, 인공지능(AI) 데이터베이스 기반 신용지원 솔루션 제공 등으로 제공 서비스가 다양화 되어있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당연한 결제수단 및 게임수단 등으로 자리 잡아 2022년 사람들의 유행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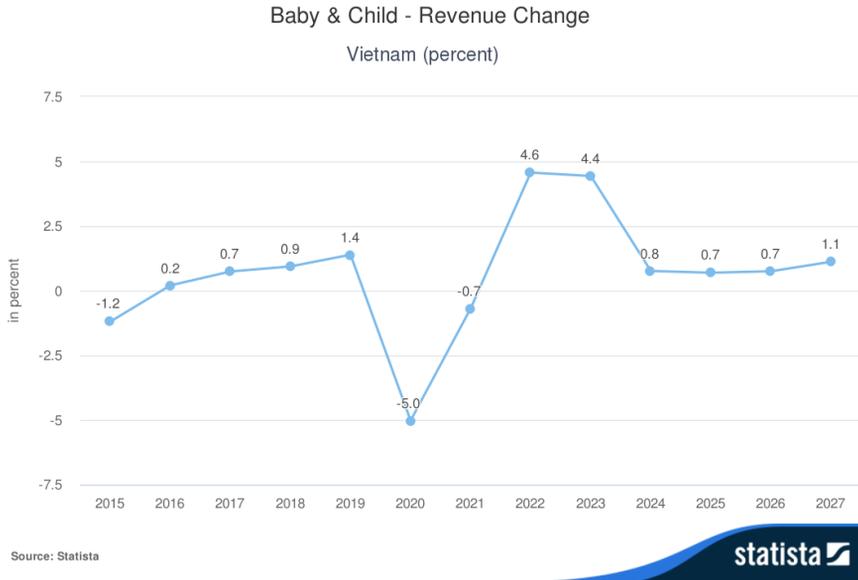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 A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베트남의 핀테크 수요는 결제/게임 소프트웨어 등에서 동남아에서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모모페이 등 QR코드 결제, 전자결제에 대한 사람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핀테크는 단연 히트 제품군이자 서비스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3) 2030 엄마들의 유행 선도, 영유아용품 시장 인기세

베트남의 4050세대는 자기 자녀가 20대 초중반에 결혼해 가정을 이룩하는 것을 대체로 당연시하고 있다. 30세 베트남 워킹맘 A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데 베트남에는 20대 중반에는 결혼하고 아이가 최소 세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1억 명이 전망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관련된 아기용품 소비에 관심이 가는 것이 당연해 관련 제품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나 2022년 베트남 소비시장은 젊은 부모들의 친환경 영유아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서로 유행하는 상품을 공유하고 공동구매하는 패턴이 급증하면서 관련 시장이 인기를 끌었다.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영유아 스킨케어 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1,511만 달러에 도달했다. 특히나 2022년 3월 완전한 방역 조치 해제 후 가족 단위 외출이 늘어나면서 자외선차단제와 같은 영유아용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급등했다.



<2015~2027년 영유아 스킨케어 시장 매출 증감률> (단위: %)



주: 2023~2027년은 예상치 / [자료: Statista]

일례로 페이스북의 베트남의 인기있는 영유아 의류 및 기타용품 구매 커뮤니티인 Hội Các Mẹ Sản ĐỒ ĐỘC Cho Bé(가입멤버 84만 명), Chữa Con Chậm Nói(가입멤버 2만 2,000명) 등에서는 유아용 친환경 젖병, 안전대, 캐릭터 잠옷 등 다양한 제품이 업로드되며 인기를 끌었다. 또한 3,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베트남 맘 인플루언서 및 개별오프라인 매장 Bibi mart 등도 관련 상품을 SNS에 업로드해 해외 구매대행, 공동구매를 주도했다.

<영유아용품 제품 예시>



[자료: 페이스북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페이지 등]

또한 개별기업의 사업 확장은 2022년 베트남 영유아용품의 인기를 입증한다. 2022년 1월에 헬스케어 투자 전문 기업 Quadria Capital은 베트남 임산부 및 영유아용품 전문 체인 Con Cung에 9,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Con Cung에서는 해당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임산부 및 유아용품 관련 소매점 2,000여 개 신규 개장, 애플리케이션 개발, 제품군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트남은 30대 이하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구조에서 최근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2030 젊은 엄마, 아빠들의 유행 주도에 소비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추후에도 영유아 관련 제품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YOLO족 증가와 외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중시하는 분위기, 의류부자재·액세서리 유행세

베트남 내 의류부자재/액세서리는 2022년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현지 소비시장 애널리스트 A에 따르면, 2022년에는 소득수준 증가를 입증하는 마냥 젊은이들이 오토바이 헬멧을 써서 머리모양이 망가지는 것보다 그랩택시를 타는 것을 택할 만큼 외관이 중요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확장됐다. 이에 따라 패션, 화장,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의류 액세서리 수요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 의류 중 6.4%를 공급하는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으로 관련 산업에서 전통적 강자인만큼 내수 시장이 활발하다. 젊은이들은 SNS에 올라오는 패션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최신 트렌드에 부합한 분위기가 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조형물, 화려한 길가 등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그만큼 베트남 내에는 의류 관련 Viet Fashion Corp, Nhabe Corporation, Vinatex 등의 현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Canifa, The Blues, Nem, An Phuoc 등의 현지 의류 브랜드 매장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Christian Dior, Hermès, Bvlgari, Tiffany & Co, Montblanc 등의 명품 브랜드들도 하노이 롯데백화점, 호찌민 타카시야마 백화점 등에 자리잡고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한 이미테이션 제품 및 매장 또한 줄지 않고 있다. 또한 글로벌 SPA브랜드 H&M도 2017년 하노이에 1호점을 연 후 베트남에서 1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Uniqlo는 2022년 10월 하노이 빈컴센터에 13호점을 추가 오픈하는 등 베트남에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만큼이나 베트남에서는 2022년 의류 장신구, 스카프, 벨트, 모자, 넥타이 등 의류 부자재 및 액세서리도 인기를 끌었다.

<의류 부자재/액세서리 제품 예시>

액세서리 예시	모자 예시	단추 등 예시
		
Chu bui Cartier	Ngoc Trinh	Ngoc Trinh

[자료: 페이스북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페이지 등]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의류 액세서리 소매시장은 2,85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경기 확대, 젊은 세대 구매력 증가 등의 이유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연평균 9.2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6년 4,060만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2년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는 Facebook, YouTube, Instagram, TikTok 등의 소셜미디어에 홍보 계정을 운영하며, 타깃 소비계층에게 인기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고용해 협업하면서 유행을 선도했다.

2023년 베트남의 유망 상품

베트남은 내년에도 6% 이상의 견고한 경제성장률, 4.5% 미만의 안정적 물가상승률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시장 소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두터워지는 중산층만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급등하는 추세이다. 관련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유제품, 제약품, 피트니스 웨어 용품, 유기농 식품 등의 소비재가 유망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의지에 따른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확대도 기대된다.

1) 건강한 분유와 요구르트, 우유까지 인기가 기대되는 유제품

베트남은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골든 인구 시대’로 불린다. 리서치앤마켓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유제품 산업은 2017년 44억 달러에서 2021년 84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2021년 베트남에 수입된 유제품의 가치는 118억 달러로 12.4% 증가했다. 특히 2020~2022년,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유제품 시장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액체 우유 생산량은 177만 리터 이상으로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베트남 유제품 시장의 매출은 1,137억 동, 2021년에는 1190억 동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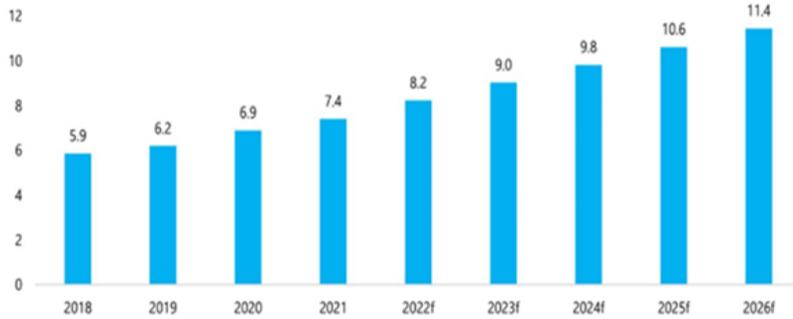
베트남에는 200개 이상의 유제품 생산업체가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 유제품 시장은 비나밀크, 뉴트리푸드, 애보트, 네슬레 베트남 순으로 점유율이 높으며 그 외에는 프리슬란트 캠피나, TH그룹 등이 주요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 낙농업협회(VDA: Vietnam Dairy Association)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1인당 평균 우유 소비량은 1년에 27리터입니다. 이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우유의 인기는 줄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특히나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 요구르트와 같은 면역증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분유 및 요구르트·우유 등 유제품의 인기는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시 지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화려한 식당에서 와인 등과 함께 분위기를 내며 식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치즈와 버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인기가 기대된다.

2) 건강한 라이프와 함께 필수 구비품이 된 제약품, 의약품

베트남은 점차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VIRAC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82억 달러로 추정되며,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의료 수요가 더욱 증가해 2023년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의약품 수입은 75억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의 1.8% 및 의료비 지출의 32%를 의약품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제약시장 규모> (단위: US\$ 십억)



[자료: VIRAC]

최근 SSI리서치는 베트남 의약품 시장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23년 제약산업 성장률이 연간 1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의 제약시장은 소매 체인의 확장세 및 온오프라인 채널 다양화로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나 닥터원·마산·비엠텔 등 신규 체인점 입점과 함께 FPT롱차우, 안항, 파머시티, 트렁손파마 등 제약 유통 브랜드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FPTSI의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기능성 식품, 항알레르기, 소염, 면역력 등의 치료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비타민C, 비타민B 복합체 등의 건강 기능 향상용 종합 비타민의 인기도 증가해 소매 채널의 의약품 소비량이 내년에도 5%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베트남 제약산업은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 건강검진과 치료의 질 향상, 사회·인구 건강보험의 전국 확대 등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영국-스웨덴)는 2022년 6월 베트남 진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의료능력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백신 생산기술을 베트남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추세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헬스 인프라 기대치를 향상시켜 제약품 구매 수요를 꾸준히 유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베트남 현지 뉴스 1, 2>

Opportunities to develop Vietnam's pharmaceutical industry

December 14, 2022 7:16 AM | News

SKDS - 69.2% of enterpris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ve clear confidence in Vietnam's economic prospects in 2023 and 42.9% of enterprises are optimistic about the prospect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the coming year.

Promising growth forecas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the second half of 2022 and 2023

Written by: Khanh Huyen
18:02 - 04/10/2022

Thick 14 | Share Facebook | Share | LinkedIn

TABLE OF CONTENTS OF ARTICLE >

Recently, SSI Research has officially published a report on the situation of Vietnam's pharmaceutical market, inclu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listed private hospitals. In particular, it is forecast that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ill continue to boom strongly with a growth rate of up to 13% in the second half of 2022.

Forecast of pharmaceutical industry growth by the end of 2022

After positive signals in the first half of 2022, SSI Research Center for Analysis and Investment Consulting predicts that the pharmaceutical market in the second half of 2022 and 2023 will continue to have strong changes. In particular, it is estimated that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ill grow by 13% over the same period in 2021 thanks to three main reasons: fluctuations in consumption trends, shortage of pharmaceutical supply and low comparative background.

[자료: 베트남 현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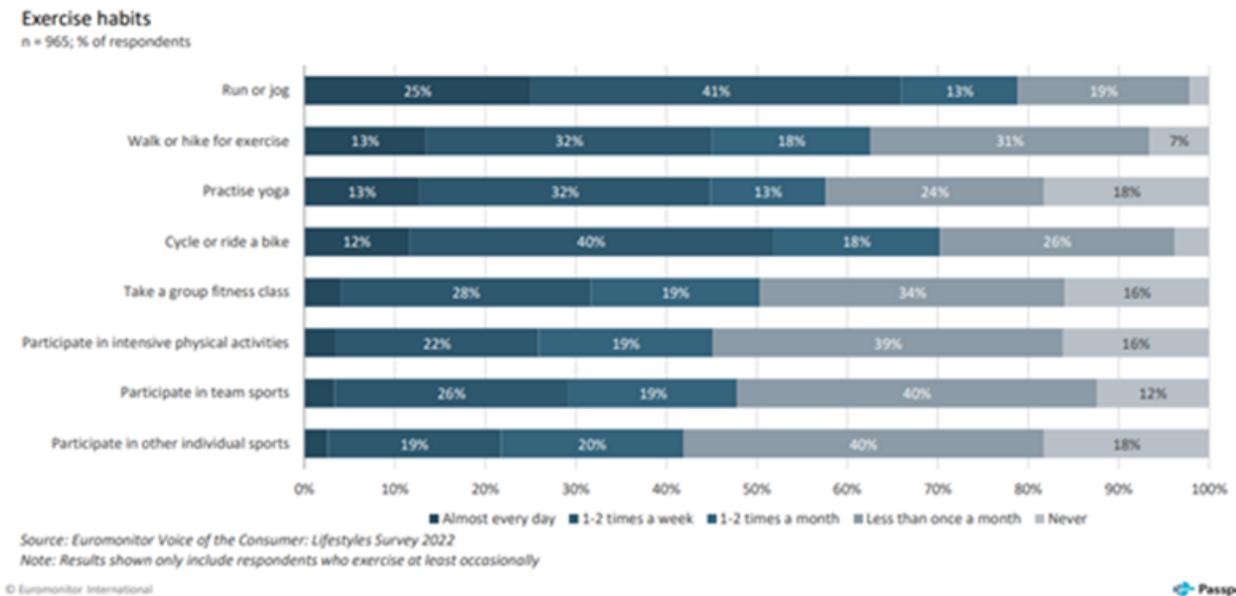


3) 스스로, 함께 챙기는 건강관리: 피트니스 웨어, 액세서리

베트남에는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이나 단체 원피스 등을 입고 모여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홈트레이닝법을 공유하고 함께 운동하는 것을 즐기는 문화가 더욱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피트니스 웨어와 관련 액세서리 및 스포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유로모니터의 "베트남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운동과 피트니스를 위한 규칙적인 달리기·조깅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2년 베트남인의 운동습관표>



[자료: 유로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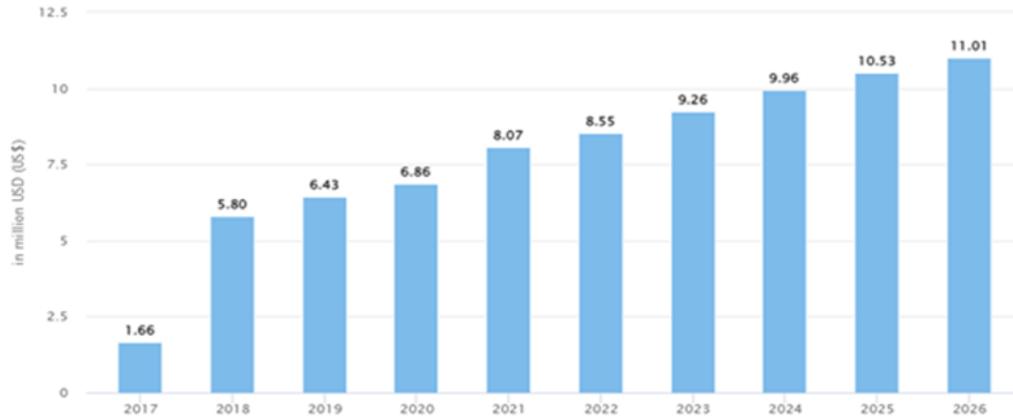
해당 조사는 15세 이상 965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인의 운동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 실시됐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운동을 많이, 매우 자주, 적당히 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주택가 도로와 내부 도로를 따라 공원과 보도에서 조깅에 참여하는 노인, 젊은이, 여성, 어린이들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 또한 마라톤 달리기 운동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호찌민, 하노이, 다낭, 칸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라톤 대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Techcombank, VPbank, FPT, Herbalife 등과 같은 많은 베트남의 대기업은 마라톤을 매년 수천 명의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발전시켰으며 브랜드 홍보, 자선 활동 등의 사회 활동으로 성장시켰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요가를 보유한 FLG 베트남의 데인 포트 총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사람들은 의견을 바꿔 '운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히며 코로나 이후 체육관 고객이 훨씬 증가했음을 입증했다.



<2017~2026년 헬스 분야 수익> (단위: US\$ 백만)



[자료: Statista]

Statista에 따르면 헬스 앤 피트니스 부문의 총매출은 2022년에 85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베트남의 MZ세대 소비자들은 운동활동의 외형을 점점 중시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운동복은 하나의 패션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게다가 젊은 직장 여성들은 매달 운동복을 사는 데 상당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종종 소셜 네트워크에 레깅스, 자전거, 크롭탑, 운동용 장갑 등을 착용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유한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피트니스 웨어와 운동 매트, 운동용 스마트 워치, 심박수 모니터, 칼로리 계산기 등과 같은 건강 추적 장치에도 기꺼이 돈을 지불하며 유행을 선도하고 있어 2023년에는 더욱 많은 유행이 기대되는 제품군이다. 이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른 현상으로 2023년에는 스포츠웨어, 헬스 웨어러블 기기 등의 유행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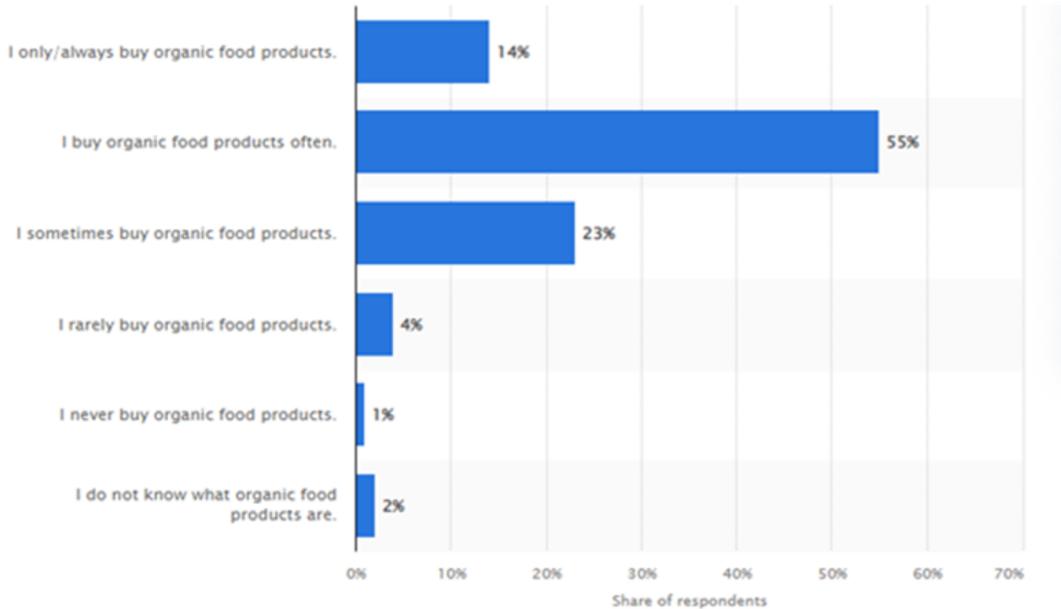
4)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활: 유기농 식품

2023년 베트남 식음료(F&B) 산업 분야는 유기농 식품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베트남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증가하는 중산층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의 증가와 함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바이어 A사는 유기농 식품의 전망을 묻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친환경 식품, 친환경 식재료로 식당의 콘셉트를 이어간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베트남 고품질 상품사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유기농 식품과 음료의 소매 판매액이 1억3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과거에는 유기농 식품이 프리미엄 가격대 때문에 베트남의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소수를 타깃팅으로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점차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Nielsen 추산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유기농 식품 시장의 총가치는 연간 17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라쿠텐 인사이트가 2021년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응답자의 약 55%가 유기농 식품을 자주 구매한다고 답했다.



<Rakuten 인사이트 설문조사>



[자료: Rakuten]

또한, 베트남 정부의 식품 안전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은 유기농 제품 선호에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응우옌 록 토안 MARD 농산물 가공 및 시장 개발부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유기농업 규제 및 유기농업 개발 계획에 관한 법령 109/2018/ND-CP를 발표해 베트남 유기농업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건강을 위한 '클린 라벨' 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 증대가 기대되는 한 해이다.

<관련 베트남 현지 뉴스>

SMART CONSUMER

“Clean label” is the food trend of 2023

SGGP - Thursday, October 20, 2022 11:17

Health and wellness trends have been on the rise in the food and beverage sector over the years, growing even faster since the Covid-19 pandemic hit in 2020.

Entering 2023, according to industry experts, this trend will continue to influence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lean label" factor and healthy nutrition claims. for health will attract great attention of users.

According to Innova Market Insights' Innovation and Customer Psychology Team, a recent survey showed that nearly 60% of consumers in Asia expressed interest in the "clean label" factor, which This has a huge influence on their purchasing decision. The most popular "clean label" claims regarding products are natural (11%), no added additives or preservatives (9%) and GMO-free (5%).

Embracing the trend, food companies in the region have begun to take notice and this can be seen through new product launches at the end of the year.

[자료: 베트남 현지 뉴스]



5) 정부의 탄소 중립 의지와 함께: 전기 오토바이 - 전기 이륜차

베트남에 도착한 관광객이 공통으로 놀라는 것은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 도보에도 오토바이가 다닌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어려서부터 오토바이 타는 것이 습관화된 나라로, 이것에서 유발되는 매연에 따른 나쁜 공기의 질도 전형적인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강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는 향후 전기 오토바이 시장 등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베트남 정부는 2050년까지 베트남 국내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전환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및 법안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위축됐던 전기 이륜차 시장은 2022년 초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친환경을 추구하는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베트남 차량 등록국(VR)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국내에 공식 등록된 전체 오토바이 및 모페드(Moped,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는 6,520만 대 이상이다. 베트남 국민 3명 중 2명이 해당 이동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기오토바이 시장이 점차 생겨나고 이것이 전통오토바이에서 전기오토바이의 전환점으로 여겨질 경우 더욱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차 리서치 및 통계 전문기업 MotorCycles Data에 따르면 지난 11월 베트남 국내 이륜차 판매량은 28만6971대,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303만 대를 기록했으며, 베트남 전기차 업체 빈패스트(VinFast) 전기 이륜차 신규 판매량의 경우 2022년 3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인 월평균 1만5,000대 수준을 회복했다.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송지용 사무국장은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수요가 연간 250만 대 정도의 큰 시장이나 높은 관세 장벽으로 인해 현지 생산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향후 국산화된 핵심부품,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체계적 A/S 등을 패키지화하여 현지 전기오토바이 시장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1년 전기 이륜차 신규 판매량 부문에서 전 세계 4위 및 아세안(ASEAN) 지역 2위를 차지했다. 2022년을 시작으로 기존 내연 이륜차 수요가 전기 이륜차 수요로 흡수됨에 따라 관련 시장은 2023년에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끝>



베트남 유산균 제품 시장 높은 성장세

- 베트남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 시장,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세
-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 여성용-유아용 유산균 등 상품 다변화 추세

2022년 베트남의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9.5% 성장한 약 10억7,200만 달러로 예상되며, 2017년 이후 연평균 11%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면역증진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1년은 전년대비 1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40대 이상의 중-고 연령층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입 동향

2021년 유산균(HS 2106.90) 수입 규모는 약 9억4,2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31%), 싱가포르(22%), 말레이시아(5%)로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2021년 전체 수입액의 58%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산의 경우 2017년 약 8,900만 달러에서 2021년 약 2억700만 달러로 수입량이 급증하였고 반면 말레이시아산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21년 기준 약 4,100만 달러로 연평균 23%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2017년 8위 수입국에서 2021년 4위 수입국으로 순위가 급상승하였다.

현지 경쟁 동향

베트남에서 수입 브랜드 유산균 제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수입 브랜드의 경우 현지 제품에 비해 1.5~2배 정도 비싸게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수입 브랜드는 대체로 베트남어가 아닌 수입국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해외 제품임을 강조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유산균 제품은 대부분 소화기 관련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는 홍보문구가 기재돼 있으며, 일반적인 '장 건강 증진'보다는 설사, 변비 등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소화 촉진, 습진 개선, 뼈, 치아 건강 증진 등을 부각한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산균 제품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에 대한 인식도 점차 고도화돼 유산균 제품을 찾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KOTRA 다낭 무역관의 협력 바이어인 Quydi Foods사에 따르면, 여성용-유아용 등 성별 및 연령분만 아니라 설사, 소화장애 등 특정 효능에 특화된 유산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월 첫 15일간 5개 품목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첫 15일간 5개의 수출 상품이 각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음. 휴대전화 및 부품이 26억 8,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 및 부품이 18억 3,000만 달러, 기계 및 장비가 1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함. 또한, 의류와 섬유는 15억 6,000만 달러, 신발은 10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음. 1월 첫 15일간 총 수출입 거래액은 28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록, 수입액은 13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함. 그 결과로 베트남은 1월 첫 15일간 7억 3,48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Vietnam Net, 1. 19]

▶ 외국인 투자기업, 베트남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

베트남 세관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 수출입 거래액은 5,068억 3,000만 달러로 연간 9.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베트남 무역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함.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2021년 대비 11.6%(약 285억 달러) 증가한 2,736억 3,0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73.7%를 차지함. 2022년 베트남 대외 무역은 7,302억 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9.1%(약 612억 달러) 증가했으며 무역 흑자는 110억 달러를 넘어섬. 외국인 투자기업은 휴대폰, 컴퓨터, 전자 제품, 기계, 장비, 부품, 섬유, 신발 등의 부문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림. 산업통상부 전 쩡 카잉(Tran Quoc Khanh) 차관은 "2022년 7,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 거래액을 기록했으며, 베트남은 국제 무역 상위 20개국에 진입했다"고 강조함. 그러나 기록적인 수출입액의 증가는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베트남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역량은 높지 않다고 덧붙임.

[VOV, 1. 16]

▶ 베트남 국내 철강, 베트남 음력 설 팻(Tet) 앞두고 가격 상승

베트남 국내 철강 가격이 베트남 음력 설인 팻(Tet)을 앞두고 상승됨. 베트남 국내 철강 가격은 1톤당 전주 대비 20만 VND 상승한 1,500만 동을 초과함. 호아팟(Hoa Phat) 철은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들어 두번째 인상된 가격에 대해 통지함. 타이응우옌(Thai Nguyen), 비엠티(Viet Nhat) 등에서도 건설용 철강 제품 가격이 톤당 20만 VND이 인상됨. 업계에 따르면 가격 상승 요인은 스틸빌렛(steel villet)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전함. 철강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으며,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임.

[VN Express, 1. 16]

▶ 베트남 최대 정유회사 응이손(Nghi Son), 공장 가동 재개

베트남 최대 정유회사 응이손은 지난 12월 말 유동액 누출에 따른 시스템 문제로 공장 가동 중단한 바 있으나, 1.22일(일) 오후부터 타잉화(Thanh Hoa) 성 정유공장 가동을 재개함. 생산량 20~25% 감소분에 대한 상쇄를 위해 증산 계획을 발표함. 원유 처리량은 연간 1,000만 톤으로 정유회사 중팻(Dung Quat)의 2배에 달하며, 전체 베트남 연료 수요 중 40%를 공급함. 레 꾸옥 빙(Le Quoc Vinh) 부사장은 "베트남 최대 명절인 팻(Tet, 음력 설) 기간 동안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VN Express, 1. 16]



▶ **베트남 스마트TV 수입 시 OTT 및 VOD 등 영상 제공 서비스 적법성 주의 필요**

베트남 정보통신부(MoIC)는 스마트TV 수입, 제조 및 유통회사들에게 영상 제공 서비스의 적법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베트남에서는 2018년 이후 OTT, VOD 등 외국계 기업 영상 제공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넷플릭스, FPT Play, VT360, AmazonTV, Film+ 및 유튜브 등 다수 앱이 스마트TV에 기설치된 상태로 유통 중임. 스마트 TV 및 리모콘 내 기설치된 앱이 다수이나 베트남 내 구동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또한 베트남 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 영상이 편집, 분류 및 등급 판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앱 구동이 불가함.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관련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취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Vietnam Net, 1. 14]

▶ **2022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전년 대비 33% 증가한 404,635대 기록**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404,635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전체 판매량 중 일반 승용차는 316,941대로 전년 대비 48% 증가, 상업용 차량은 82,716대로 1.5% 감소. 특수목적 차량은 4,980대로 14% 감소함. 전체 판매량 중 국내 조립 차량은 226,487대로 전년 대비 30% 증가, 수입 차량은 178,148대로 37% 증가함. VAMA 회원사 이외의 Audi, Jaguar, Land Rover, Mercedes-Benz, Nissan, Subaru, Volkswagen, Volvo 등의 외국계 기업에서는 판매 수량을 비공개하였으며, 현대TC모터스 등 기타 제조사 2022년 판매량은 81,582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함.

[Vietnam Plus, 1. 12]

▶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 BOE, 베트남에 신규 공장 2곳 계획**

삼성 및 애플에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중인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 BOE는 베트남 북부지역에 대지를 임대하여 신규 공장 2곳을 건설할 계획임. 삼성 및 LG전자 TV 스크린 공급에 활용 중인 기존 베트남 남부 공장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 북부지역 신규 공장 2곳을 계획하게 됨. 베트남 북부는 최근 몇년동안 전자제품 관련 대기업들의 중요한 투자처로 부상하였으며, 애플 및 삼성 플래그십 모델을 포함한 스마트폰, 컴퓨터, 카메라 등의 주요 생산 허브로 발돋움함. 폭스콘, 렉스웨어 등에서도 노트북 및 태블릿PC를 포함한 다수의 애플 제품 조립 계획을 발표함.

[Vietnam Plus, 1. 12]



▶ 베트남 소매시장, 향후 5년간 지속 성장 전망...1,635억 달러 규모 증가 예상

베트남의 세분화된 유통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업체들이 소형 유통업체들과 합병하는 등의 인수합병(M&A)이 늘고 있는 추세임. 베트남 소매시장은 다수의 대형마트가 장악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제품 혁신으로 신규 계약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등 발자취를 키우고 있음. 이에 따라 베트남 소매시장은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확장세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임. 베트남 국내외 소매업체들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소매 상점을 제공하여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음. 급격한 속도의 도시화와 젊은 도시 소비자들의 쇼핑 선호도 변화는 편의점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현대 유통 채널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은 시장 확장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소매업체들은 이런 유리한 지표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도 많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Vietnam Net, 1. 12]

▶ 베트남, 한국산 분유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

베트남이 한국산 분유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함. 작년 11월 對베트남 한국 분유 수출액은 1,585만 달러였으며,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1~11월 누적 수출액은 9,586만 달러로, 2023년에는 1억 달러를 최초로 달성할 것으로 예측함. 텔레비전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브랜드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한편, 분유 수출 확대는 한국 저출산으로 인한 분유 소비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Vietnam Plus, 1. 11]

▶ 하노이 서비스아파트 시장, 2022년 4분기 강한 회복세 기록

2022년 4분기 하노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매매보다 서비스아파트 부문에서 더 강한 회복세를 보임. 입주율 81%, 직전 분기 대비 4%p 증가 및 전년 동기 대비 12%p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이전 수치인 82% 수준으로 거의 회복함. 임대료는 1㎡당 월 575,000동 수준으로, 직전 분기 대비 1% 및 전년 동기 대비 6%가 상승함. 특히 FDI 증가가 고급 서비스아파트 부문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4분기 신규 공급은 없었으나 삼성전자 베트남 R&D센터 준공 등 기업 종사자 다수의 유입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임.

[Vietnam News, 1. 11]

▶ 베트남, 빈패스트(VinFast), 이달 미국에서 차량 인계 시작

빈그룹(Vingroup) 자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객들과 판매 계약을 맺고 있으며 1월 중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함. 또한 빈패스트(VinFast)는 구매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들과 제휴하고 있음. 2022년 11월말 빈패스트(VinFast)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위한 5년간의 베트남 자동차 생산기지 개발 입찰을 마무리하고 999대의 첫 수출분을 미국으로 선적함. CEO 레 티 투 투이(Le Thi Thu Thuy)는 "11월에 선적된 VF8 전기 SUV 차량 중 일부는 미국의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Autonomy를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소매 구매자들에게 전달 될 것"이라고 전함.

[VN Express, 1. 9]



▶ 2022년 베트남 새우 수출, FTA 관세 혜택 덕분에 수출량 증가

2022년 베트남 새우 수출은 FTA 관세 혜택 덕분에 수출량이 증가함.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에 따르면 2022년 새우 수출액은 4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됨. 미국 및 EU 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 일본 시장에 주력하여 에콰도르산 및 인도산 상품에 대해 비교 우위를 선점함. 캐나다, 멕시코 및 호주 수출은 약 30%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FTA가 베트남 수산물 수출 확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함. CPTPP 가입국 대상 수출액은 1년 동안 31% 증가한 29억 달러에 달함. CPTPP, EVFTA 등 FTA 체결국 시장의 경우 진입이 비교적 쉽고, 관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강화가 수요 감소를 상쇄한다고 시사함.

[Vietnam News, 1. 6]

▶ 베트남, 새해 연휴 3일 동안 관광 부문에서 4억 달러 이상 수익

베트남 관광청은 올해 새해 연휴 3일 동안 관광 부문에서 약 9조 6,000억 동(약 4억 83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전함.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약 300만명의 관광객을 기록하였으며 한국, 러시아, 독일, 스페인 등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를 이뤘음. 특히 꽝남성은 8만 9,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하노이 3만 8,000명, 호치민 3만 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연휴 기간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을 찾음.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범유행의 2년 후부터 관광업이 회복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전함. 관광 시장을 재편하고 관광 상품들을 갱신하는 등의 올바르게 시기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많은 해외 방문객들의 귀환을 도왔음.

[Vietnam Plus, 1. 4]

▶ 베트남, 2022년 4분기 고용 부진

베트남의 채용회사인 Navigos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고용 시장은 2022년 4분기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함. 보고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고용 수요가 평균 25% 감소했으며, 12월에만 45% 급감했다고 지적함. 이처럼 급격한 하락의 원인으로서는 고금리, 세계적인 지정학적 긴장, 불안정한 환율, 연료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베트남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에 기인함. 출판업은 65%로 가장 큰 고용 감소를 기록했고 건설업 55%를 포함하여 구매·공급 및 자재 운송업 53%, 판매 및 마케팅업 50% 감소로 평균 50% 이상의 감소를 보였음. 금융, 소비재, 증권 등의 노동수요 감소폭은 13~45%로 앞서 언급한 노동집약적 산업들 만큼은 높지 않았음.

[The Saigon Times, 1. 2]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Tuy Hoa구 448MW 풍력 발전 프로젝트
- Vinh 공항 제2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inseul_y@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Tuy Hoa구 448MW 풍력 발전 프로젝트

발주처	○ 기관명 : MINH THACH D&L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베트남 Phu Yen 성 Tuy Hoa시 동북부 연안 ○ 규모 : 약 60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계획단계 ○ 세부내용 - The project has a capacity of up to 448MW of wind power with 80 tentative wind turbines. - Total survey area of the project is about 4,370ha. - Expected power output is about 1.68 million MWh/year. - It will be invested and constructed after the Ammonia plant comes into operation.

- Vinh 공항 제2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발주처	○ 기관명 : MINISTRY OF TRANSPOR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베트남 Nghe An 성 Vinh 공항 ○ 규모 : 약 6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M/P 투자 승인대기중 ○ 세부내용 - According to proposal of Vietnam Civil Aviation Authority, by 2030, Vinh International Airport will be invested as 4E level. - The capacity: 8 million passengers per year and 25,000 tons of goods per year. - The total number of aircraft parking: 25 slots. - Kinds of aircrafts: B747, B787, A350 and equivalent. - After Terminal No. 2 put into operation as domestic terminal, Terminal No. 1 will be changed into international terminal.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소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018년 4월 25일, 해외건설 촉진법 제 28조의 2에 의해 설립되어 2018년 6월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KIND는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전력/에너지 및 플랜트, 수자원 및 환경 분야에서 해외 사업정보 및 PPP정보 발굴, 관리, 정책분석과 국가별 사업발굴, 예비/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자문을 통한 사업개발 그리고 대출, 펀드투자 연계와 직접투자, 출자 금융자문 금융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협력센터 소개

KIND는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가치, 성장 잠재력, 인프라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에 지사를 2019년 7월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국 건설사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협력센터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KIND 본연의 업무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 발굴 외에도 베트남에 이미 진출했거나 투자 계획 중인 아국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인프라 및 PPP 동향을 조사하여 사업개발 및 동향파악, 수주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업무현황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 비율,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성장 잠재력과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은 나라입니다. 최근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제조업 및 관광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인프라와 공업단지에 대한 개선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KIND도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지 개발사와 함께 베트남 북부의 Hung Yen성에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하여 투자 사업을 진행중이며, 산업단지 관련 사업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인구증가 및 도시화율 속도에 기반하여 신도시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Smart City라는 Concept이 더해지면서 한국의 Smart City 개발 경험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주요 Developer와 국내 건설사와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KIND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베트남 Developer와 아국 기업의 사업 협상에 있어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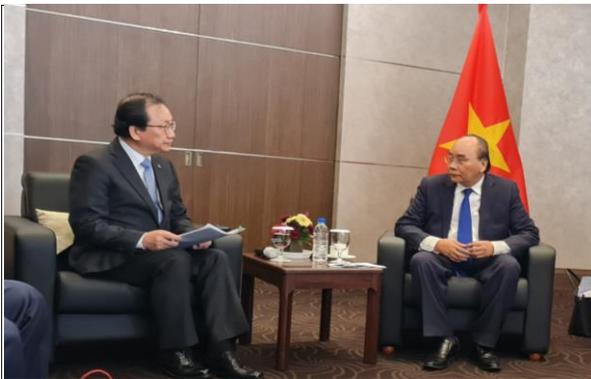


그 외에도 교통 인프라와 관련하여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PPP 국제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지만, 베트남 교통부,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PPP 제도개선 및 아국사에 유리한 발주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베트남 역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차 국가전력개발 마스터플랜(PDP 8, Power Development Plan 8) 상 재생에너지와 가스복합화력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추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Gas to Power (LNG 수입터미널,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한국 개발사 및 투자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인프라협력센터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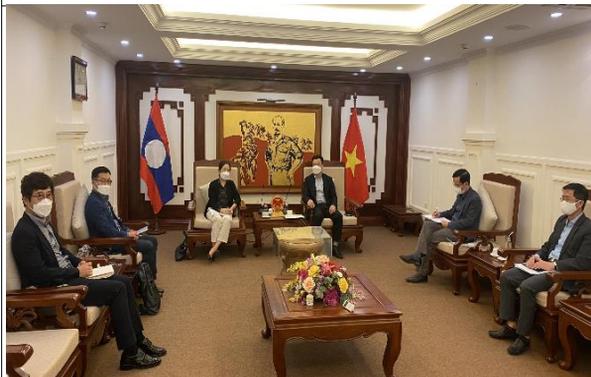
KIND가 설립된지 5년이 채 안 되는 신설기관이고, 개발사업의 준비 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만큼 베트남에서 아직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 유관기관, 지방정부, 한국 건설사 및 개발사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사업기회 발굴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주요 투자자로 자리 메김을 해 우리 기업과 베트남 인프라 발전에 더 많은 도움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베트남인프라협력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강훈 사장, Nguyen Xuan Phuc 前주석 면담



동나이성 당서기 면담



MOT와 PPP사업 관련 협의



Local Developer와의 MOU 체결

<끝>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안동욱 참사관



3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소회가 어떠하신가요?

외교부 공무원은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재직 기간 동안 평균 5-6회 정도의 해외 공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베트남 대사관 근무가 3번째 근무이고 앞으로 2-3회 정도 더 근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관 근무는 개인의 업무 장소와 내용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 더불어 가족들의 생활 근거지와 패턴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에게 있어 공관 근무는 인생의 한 챕터가 넘어가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저의 베트남 챕터는 이전 어떤 챕터보다도 다사다난했고 보람도 많았던 경험이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하노이 도착 다음날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였고 이후 모든 업무와 개인 생활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고 다시 빠른 속도로 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며, 한국 정부와 대사관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했던 거의 모든 전임자들도 같은 느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 또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에 다시 근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야 조금 베트남의 진면목을 느끼고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떠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한 베트남의 특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베트남 경제 및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가진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외교관의 근무 환경과 조건은 주재국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협력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최상의 협력단계에 다다른 만큼 양국간 고위급 교류도 매우 빈번하고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한국 대사관에 대해 항상 최상의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주재국 내에서의 한국 대사관의 위상도 주요국에 버금가는 상황입니다. 해외 공관에 근무하게 되면 보통 여러 현안과 관련된 협조를 구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외교관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높다보니 주요국 외교관들이 먼저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경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매우 신선하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현재와 같은 최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이 베트남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꾸준히 베트남에 진출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우리 기업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양국 국민들도 다양한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진정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제팀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은 행사나 일정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전반기 절반은 정무팀장으로서 후반기 절반은 경제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무팀장으로서 2020년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여러 협력 과제를 준비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였고, 경제팀장으로서 2022년 두 차례의 Meet Korea 개최(3월 타잉화, 5월 빈딩)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갈 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Meet Korea 행사는 한국 기업과 베트남 지방정부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식적 채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베트남내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Meet Korea 행사 개최 과정에서 온갖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서 지원을 제공해 주신 코트라 이종섭 본부장님 및 박민준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이 문화적 정서적 유사성, 풍부한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진출 대상국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정부 제도와 기업환경의 불투명성이 낮지 않은 국가입니다.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는 베트남 정부의 세무, 노동, 인허가 관련 제도와 규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 경제팀은 코트라 무역관 및 코참과 협력하여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들이 관련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여력이 많지는 않겠지만 베트남의 관련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 것이 애로사항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베트남 경제협력 미래 어젠다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지 30년이 된 해였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는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이는 모두 베트남에 진출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이 기업 주도 속에서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협력 관계였다고 하면, 앞으로 30년은 양국 정부가 주도하여 새로운 전략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이에 맞추어 양국 경제협력 관계도 양적인 협력관계 확대를 넘어 질적인 협력관계 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지원 및 투자 진출을 넘어 양국이 상호 지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제안보, 공급망 대응,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탄소중립, 보건, 인프라 등이 향후 매우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대사관도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난 3년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 분들을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뵈고 이임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며,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대사관 정무팀 및 경제팀에서 근무하고 이번에 같이 하노이 근무를 마무리하는 김동윤 서기관 및 정연이 서기관과 또한 저와 함께 경제팀 어벤저스의 성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윤상기 재경관님, 김유인 국토관님, 민문기 상무관님, 양기성 과기관님, 송원영 국세관님, 김윤혜 노무관님, 박성수 식약관님, 홍기옥 농무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코참 회장 이취임식 및 2023년 정기총회 & 경제전망세미나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는 지난 1월 11일 그랜드플라자 하노이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참 제14대 김한용 회장이 이임하고, 제15대 홍선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코참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한용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코참 회장직에 올랐었는데 4년의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가 저보다 훌륭한 회장님께 회장직을 넘겨주게 되었다"며 "15대 코참 회장단에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박종경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김한용 회장님께서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셨던 만큼 감사드리며 15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홍선 회장님도 축하드립니다"면서 "한베 수교 30년의 기간 동안 양국 협력이 강화된 데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기여가 컸던 만큼 미래의 30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대사관은 코참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선 신임 회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인 코참 회장직을 맡은 만큼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코로나 발생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참호를 잘 이끌어주시고 지난 4년간 코참 재정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한용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어 홍 회장은 "코참 내부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코참회원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갈 계획이며 한국기업과 베트남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제15대 코참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홍 회장은 ▲기업들의 고충과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성장 지원센터를 상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세무/관세 위원회, 노무/비자 위원회, 건축/소방 위원회) ▲회원사들의 사업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회원사 활동 적극 지원 ▲지방 코참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상호보완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및 정기적인 세미나/네트워킹 모임 개최 ▲베트남 중앙정부/지방정부 네트워크 행사 및 각국 상공인연합체인 VBF의 멤버들과 연결하여 베트남 대정부 활동 강화 및 각국 챔버 멤버들간 비즈니스 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코참 제14대 회장단 감사패 전달, 코참기 인계 등이 진행됐다. 총회에서 2022년 활동보고/2022년 결산 보고/2022년 감사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후 열린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는 한국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형중 팀장이 '베트남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 주요 사진>



<끝>



베트남 팀코리아협의회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

핀투비 박상순 대표이사(베트남법인 법인장 겸직) 인터뷰



박상순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핀투비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핀투비는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저희 핀투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공급망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18여년 동안 유수의 선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해왔으며, 2015년에 핀투비를 창업하여 공급망금융 시장을 개척해 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금융이란 무엇인가요?

‘공급망금융’이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급망(supply chain)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금융기관을 엮어 자금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을 예로 들자면, 휴대폰의 전후방 공급망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A기업은 카메라 모듈을, B기업은 보드판을 각각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기도 하고, C기업은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도매로 구입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급망금융은 이와 같은 전후방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과 같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생태계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단기 자금 운영에 있어서 유동성 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납품을 하더라도 결제대금은 통상 1~2달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단기 유동성 이슈 해결을 위해 자금조달을 하고 싶어도 신용도가 부족하다 보니 부동산과 같은 확실한 담보가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고 채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금융은 중소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지원하는데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해당 공급업체가 이를 할인한다면, 금융기관은 해당 업체의 신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금결제를 할 삼성전자를 믿고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망금융의 핵심은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망금융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금융은 공급망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이러한 동산자산을 유동화하는 데에는 많은 거래비용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무형자산인 매출채권의 경우, 진위성 입증과 더불어 이중양도 방지 대책까지 다 마련되어야 비로소 금융이 제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전준비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공급망금융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발달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래비용 이슈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해당 협력업체 간의 거래로 인한 재권채무 관계 발생에서부터 대출 신청, 대금 결제 및 대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도록 대기업과, 협력업체, 그리고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핀투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급망금융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 동남아의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남아의 현지 중소기업들은 공급망금융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 거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핀투비는 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였나요?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공급망금융 전문 선도 핀테크기업이 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창업 당시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해 왔습니다. 글로벌 진출 지역 선정을 놓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특히 동남아 시장에 주목해 왔습니다.

우선은 공급망금융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전 세계의 공급망금융 시장은 자산 기준으로 약 3,000조원에 달하며, 연평균 4%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 시장은 최근 연평균 16%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제조기반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경제 고성장으로 인해 유통업과 건설업이 발달하면서 공급망금융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의 주력시장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보면, 그 잠재시장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GMEP 데모데이 행사 참가>

둘째는 진입 용이성입니다. 비록 동남아 지역이 공급망금융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나, 성장 단계로 보면 여전히 미성숙한 시장입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달한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하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선진기법의 공급망금융에 익숙한 한국계 금융기관과 한국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핀투비가 보유한 한국계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시장에서 성공 케이스를 단시간 내에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로컬 은행과 로컬 기업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시장을 창출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선점 가능성입니다. 공급망금융은 공급망 내의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본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 장치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한번 적용이 되면, 전환비용(Switching Cost)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 선점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사업 영역입니다. 아직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동남아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경쟁 입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투비의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거래관계가 있는 대기업이 금융사와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매출채권과 같이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을 토대로 별도의 추가담보 없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은행 대출을 매우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할인을 예로 들자면, 과거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해 할인을 받고 싶을 때마다 매번 은행을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처리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핀투비의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면, 최초에 은행과 한번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핀투비 플랫폼을 통해 매월 매출채권을 조회하고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인을 신청하여 해당 일자에 필요 자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도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단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언제 설립하였고, 서비스는 언제 개시하였나요?

핀투비는 '18년 8월에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19년 9월부터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현지 금융기관에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및 미래에셋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선도 금융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로컬 금융기관들에 대한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년 6월 신한금융그룹 및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Series A 투자를 유치한 이후, 베트남 현지인력의 확충을 토대로 현지화를 보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본사는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치민에도 상주인력 배치 등을 통해 영업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년 한해 동안 핀투비 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대출취급액은 약 700억원에 이르며, '23년까지 대출취급액 기준 10배 성장을 목표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최근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희 핀투비는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지 로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계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직접적 제휴를 통해 해당 기업 및 전후방 공급망 협력업체에 최적화된 공급망금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시장에서의 현지 네트워크 및 브랜드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핀테크 및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참가하여 선도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베트남중앙은행에서 주최한 Fintech Challenge Vietnam에서 참가하여 Finalist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Vietnam Fintech Summit에서 3위를 수상하는 등 핀테크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으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창업진흥원 주관의 베트남 현지 글로벌액셀러레이팅(GMEP)에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지난 12월에 빈즈엉에서 개최된 Vietnam TechFest 전시회에 부스를 개설하는 등 현지 마케팅 관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잠재고객 유치와 더불어 투자 유치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핀투비가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큰 보탬이 되어 드릴 수 있고, 나아가 성공적인 경쟁 입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TECHFEST Vietnam 행사 참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의 어려움 및 유의점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베트남에서 8년째 변호사로서 여러 영역에서 법률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면 부동산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다시금 여러 거래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에 여러 개발사들이 진출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이 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고, 개발 범위가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 시 내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프로젝트로는 대우THT프로젝트, 시푸차 프로젝트 등이 있지만, 한국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비하면 그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이 어떤점에서 어려운지, 그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베트남 부동산 개발 시장의 특징

베트남 부동산 개발 시장에 외국투자자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산주의 법률, 이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주도 토지제도,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시장 등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외국인에게 부동산 개발에 대해 일부만이 허용된 점도 투자자들이 사전에 투자를 검토할 때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투자자가 개발 대상 토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지어 부동산을 개발합니다. 개발대상 토지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개발대상토지를 확보하는 첫 단계부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3. 개발대상 토지 확보의 어려움

토지소유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가 베트남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토지소유주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국 등기제도와 달리 베트남은 관할 기관을 제외하고 토지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소유주가 직접 자신이 권리증서를 공개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소유주를 확인했다고 한다면, 해당 토지를 양수도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본문에서 토지 소유주라고 표현하였지만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사용권’만 갖고 있으며,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즉,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자인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양도 대상 토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양도대상 토지가 실제로 개발목적으로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서는 양도권자의 동의 하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양 당사자가 양수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양도가 가능한 토지인지, 양도승인절차가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부동산 개발시 유의점 및 사례 검토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즉, 정확한 토지권리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기도하고, 개발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가 매매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금이 지급되었지만 외국인은 권리 취득이 불가능한 목적물이기에 인허가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비용과 시간을 날리는 실패사례가 발생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노이 인근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가 좋은 위치의 좋은 가격의 매도인을 만나 협상을 진행하던 중, 실사 결과 협상에 임하던 매도인측이 매도인도 아니고, 매도인측 대리인도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매도인과 거래를 진행하던 중 실사 결과 사전에 논의해 온 개발 목적으로는 적합한 토지가 아니며, 해당 토지를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여 개발일정에 맞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개발은 그 첫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한 투자 검토와 사전 실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위치의 토지가 아닌, 실제 사용이 가능한, 권리확보가 가능한, 투자 전반적인 방향을 확실히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불필요한 비용, 시간 낭비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알아두면 유용한 유통·무역업 관련 베트남 법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베트남 유통업 투자 진출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 품목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 유통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1월 15일 발효해 현재도 유효한 국제 상품 매매와 외국인 투자법인(외투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한 상법 규정에 대한 시행령 (decree 09/2018/ND-CP)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 범위 확대

구 시행령(decree 23/2007/ND-CP)하에서는 유통·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영업허가서(Business License, BL)를 취득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여 실무 처리 시 일부 서비스에 대한 투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행령 09에서는 아래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영업허가서 취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영업허가서 취득 절차도 규정하고 있어 모호한 규정 때문에 투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감소하였습니다.

- 소매 유통
- 관련 국제협약에 약속된 사항을 제외한 물류 서비스
- 무역 촉진 서비스 (광고 서비스 제외)
- 전자상거래(E-commerce) 서비스
- 유통유 의 수입 및 유통
- 상품 임대 (금융 리스와 건설장비 운전자를 포함한 건설장비 임대는 제외)
- 무역 중개 서비스
- 상품/용역을 위한 입찰 서비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등록증(IRC)과 법인등록증(ERC) 외에 별도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영업허가서도 취득해야 합니다.

2. 수입, 수출 및 도매유통은 영업허가서가 필요 없음

유통유 제품의 경우, 수입과 도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 사안에 따라 수입권/도매권과 영업허가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09에서는 유통유 제품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입과 도매유통 사업에 따른 영업허가서 취득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외투법인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영업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IRC와 ERC만 수정하면 됩니다.



3. 산업무역국(DOIT)으로 관할 이전

시행령 09에 따라 투자계획국(DPI)을 대신하여 성 또는 시 산하의 산업무역국(DOIT)이 영업허가서와 점포 설립 라이선스(Store Establishment License, SEL)의 발급과 변경 및 취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의 신청서류에 대해, 산업무역국(DOIT)이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MOIT)와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4. 외국인 투자 법인이 베트남에서 유통 가능한 품목의 확대

WTO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베트남이 외투법인에 유통 사업권을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09를 통해 베트남은 WTO에 명시되지 않고 법상 금지되었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유통 사업권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탄유 제품의 경우, 해당 유탄유 제품을 직접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경우나, 특화된 유탄유 제품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기계/설비를 생산 또는 유통하는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쌀, 설탕, 미디어 레코딩, 서적, 신문/잡지, 외국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의 경우도 별도 심사를 통해 소매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수요 심사(ENT) 규제 강화

전과 같이 시행령 09하에서도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는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는 ENT 심사 대상입니다. ENT 심사 제외 대상에 대해, 시행령 09는 구 시행령 23의 (i) 소매점포의 규모가 500m² 미만이며, (ii) 상업센터 내부에 위치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iii) 미니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 아닌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ENT 심사 제외 대상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소매유통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시행령 09에 따라 이제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도 별도의 소매점포 설립 라이선스(Store Establishment License, SEL)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ENT 심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시행령 09에서는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ENT 위원회 개설을 통해 ENT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NT 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담당 기관	소요 시간
1	소매점포 설립 라이선스(SEL) 신청	지방 산업무역국(DOIT)	
2	ENT 위원회 개설	지방 인민위원회(PC)	ENT 신청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3	ENT 심사 결과 발표	ENT 위원회(장)	ENT 위원회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
4	ENT 심사 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MOIT)에 제출	지방 산업무역국(DOIT)	ENT 심사 결과 발표 후 3영업일 이내
5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중앙 산업무역부(MOIT)	DOIT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6	소매점포 설립 라이선스(SEL) 발급	지방 산업무역국(DOIT)	MOIT의 의견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

<끝>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 부가세율 시행령 >

Q : 2022년도에는 부가세율이 8%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부가세율은 유지가 되나요?

A : 국회의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안에 따른 시행령[15/2022/ND-CP(2022/01/28)]으로 인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세율이 기존 10%에서 8%로 감면 적용되었습니다.

부가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 중 일부 철강, 광업 관련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수입 시에도 8% 감면 부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시행령의 효력 종료로 부가세율이 10%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품목을 취급하시는 경우, 부가세 업무와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 중고 기계 수입 관련 규정 개정 >

Q : 중고 기계와 관련한 신규 규정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변화 사항이 있나요?

A :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하이테크 기업 및 투자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테크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이 중고 생산라인을 수입할 경우, 간소화된 수입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중고 생산라인 수입을 위해서는 잔존 생산량 및 효율성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 가능한 검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해당 생산라인 검사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국가 현지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행령 10조 3항).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 생산라인 수입 절차를 신설하며, 하이테크 기업에서 수입하는 중고 생산라인을 위한 검사가 수입자의 제조지 혹은 프로젝트 진행 장소에서 진행이 가능하게끔 한 점에 주목됩니다(신설 시행령 10조 4항).



해당 하이테크 기업의 수입 절차 진행 시, 생산라인의 첫번째 선적건이 있을 시 하이테크 기업은 일반적인 수입 서류 이외에 기업들은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하이테크 기업 혹은 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하이테크 적용 등록 인증서 혹은 투자 승인 결정문 및 관련 기관과의 서면 계약서 등 특별 투자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행령 첨부 양식(Form 01)에 따른 수입자 약속서와 수입될 생산 라인의 각 장비와 기계 리스트
3. 시행령 첨부 양식(Form 02)에 따른 제품 수입, 조립 및 작동된 이후 검사를 위한 신청서, 신청서에는 지정된 검사 기관의 확인 및 수입될 기계와 장비 리스트 첨부 필요
만일 첨부된 기계와 장비 리스트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의 확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 필요

위와 같은 서류 제출 후, 수입자는 물품을 자신의 보세창고로 운송할 수 있으며, 그 후 이어지는 동일 생산라인의 선적 건에 대해 수입자는 동일한 세관을 통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초 선적건의 운송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내에 수입자는 검사 인증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은 해당 인증서를 통해 시행령 5조에서 정하는 라인 효율성 등이 충족됨이 확인되고, 관련 수입 서류가 모두 납부된 경우 수입 신고 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입 장비의 보관 기간 동안 수입자는 검사 목적을 위해서만 생산라인을 조립/작동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생산을 위한 라인의 작동은 금지됩니다. 만일 장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립된 장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시행령 5조에 따른 효율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자는 패널티의 대상이 되며, 생산라인을 재수출하여야 합니다. <끝>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라오까이성

□ 라오까이(Lao Cai)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6,364.25km² / 인구 : 761,890명 • 도시거주 비율 : 26.39%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까이성은 베트남의 북서부에 위치한 고원 지방임. 북쪽으로는 중국 윈난성, 서쪽으로는 베트남 라이자우(Lai Chau)성, 남쪽으로는 Yen Bai)성, 동쪽으로는 하장(Ha Giang)성과 인접해 있음. • 라오까이성은 쿤밍(중국)-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꽝닌(Quang Ninh) 경제 회랑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 또한, 중국의 남서부의 시장과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들을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함.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노바이(Noi Bai) - 라오까이 고속도로 • 철도: 하이퐁(Hai Phong)-하노이-라오까이 철도 • 수로: 홍강(Red river) 및 차이강(Chay River)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5.33% • 성 1인당 GDP: US 3,597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US 12억 달러 / 총 수입액: US 7.24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46.71%), 서비스업(3.8%), 농수산업(5.69%)
산업구조('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46.71%, 서비스업: 39.15%, 농수산업: 14.14%
노무여건('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령 인구 비율: 58.4% •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5.8%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27%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까이시: VND 4,160,000= US 180 달러(2급지) • 사파(Sa Pa) 군, 바오탕(Bao Thang) 현: VND 3,640,000= US 158 달러(3급지) • 타 지역: VND 3,250,000= US 141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까이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27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6.85억 달러 • (한국) 라오까이성에의 한국투자는 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0.82억 달러 규모임. 라오까이성에 투자한 8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2위 규모(싱가포르 1위).



□ 투자환경



라오까이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라오까이성은 국제 및 지역적으로 유리한 교통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도로): 455km 길이의 5개 국도 및 973km 길이의 16개 성도로가 있음. 그 중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는 라오까이성을 72km길이로 관통하며 이 고속도로는 중국의 하카우(Ha Khau)-쿤밍(Con Minh) 고속도로와 연결됨
- (철도): 중국 쿤밍시와 연결되는 하이퐁-하노이-라오까이 철도가 있음
- (수로): 홍강(Red river) 및 차이강(Chay River)이 관류하고 있음
- (항공): 4C급 규모인 사파 공항은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에 가동될 예정임
사파 공항은 라오까이성을 중국 시장과 직결되고, 4가지 유형의 교통을 갖춘 성으로 건설할 예정임. 이는 라오까이성과 북서 산악 지역이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됨. 또한 라오까이성은 중국 윈난성과 인접한 182,086km길이의 국경선을 갖추고 있으며, 라오까이 국제 관문은 운송, 창고, 화물검사, ICD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음.



○ 관광 및 천연자원

- **(관광)** 라오까이성은 25개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북서부 고원 지방으로, 매우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무형 및 유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독특한 관광 개발의 이점이 있음. 특히 베트남은 열대 기후 국가이지만 라오까이성의 사파, 박하(Bac Ha), 밧삿(Bat Xat), 이띠(Y Ty) 등의 관광 지역은 온대 기후를 가지고 있음.

라오까이성은 박목르엉뜨(Bach Moc Luong Tu), 라오탄(Lao Than), 뉴꼬산(Nhiu Co San), 특히 인도차이나의 지붕 및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판시팡과 같은 많은 높은 봉우리가 있어 등산과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지역임.

라오까이시에서 라이자우성 방향으로 약 35km 떨어진 사파 군은 라오까이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목적지 중 하나임. 사파의 명소는 함롱(Ham Long)산, 므엉화(Muong Hoa) 계곡, 따반(Ta Van) 마을, 갓갓(Cat Cat) 마을, 사파 석조 교회 등으로 알려짐.



사파(Sa Pa) 군 전경



판시팡(Fansipan) 봉우리



므엉화(Muong Hoa) 계곡



메밀꽃 언덕

- **(광물)** 라오까이성은 대규모 야금, 비료 및 화학 생산 공장과 함께 다양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발전에 강점이 있음. 성 내 35개 이상의 광물이 있으며 150개 이상의 산업적 가치가 있는 광산이 있음. 그 중 인회석, 철, 구리, 흑연, 희토 등 귀중한 광물은 고품질로 평가되며 매장량은 베트남 최대규모임.

- **(수자원)** 경사진 지형을 가진 강과 하천 시스템은 라오까이성에게 중소형 수력 발전을 개발하는데 이점이 있음.



○ 인센티브 지원 정책 *중앙정부의 공통 투자 인센티브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경제구역 및 하이테크 구역에서의 토지 사용료, 토지 및 수면 임대료 징수에 대한 제35/2017/ND-CP 의결서(2017.04.03)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범위 및 경계는 총리의 제40/QD-TTg 결정서 (2016.09.22)에 명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11~19년 계속 면제(투자 분야/지역에 따름)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라오까이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라오까이시, 라오까이 국경 경제구역의 범위 및 경계 내에 있는 구 및 마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7년간 계속 면제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Đ-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농업 및 농촌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	특별 투자우대 농업 프로젝트	투자우대 농업 프로젝트	투자장려 농업 프로젝트	신규 중소 농업 기업
토지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전체 기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된 우대 토지가격 적용 (최소 5년 동안 안정적) • 첫 15년간 면제, 이후 7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된 우대 토지가격 적용 (최소 5년 동안 안정적) • 첫 11년간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 	첫 5년간 면제, 이후 10년간 50% 감면
	근로자를 위한 집을 짓거나 비농업 목적(공장, 창고, 건조장, 도로, 나무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하는 모든 농업 프로젝트(토지용도 변경이 허용된 토지 포함): 토지 임대료 면제			
법인세	삼림 조성 및 보호, 농림어업 재배/양식, 식물과 동물의 생산, 번식 및 교배, 농산물, 수산물 및 식품 보존으로 인한 기업 소득에 대해 전체 운영 기간 우대 세율 10%를 적용함			

- (라오까이성의 개별 투자 인센티브 정책)

- 제 26/2020/NQ-HDND의결서(2020.12.4): 농업 생산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
- 제 06/2021/NQ-HDND의결서(2021.4.9): 2021-2025년 기간 라오까이성에의 관광개발 지원정책
- 노동 지원
 - + 라오까이성은 기업에게 필요한 노동 훈련을 위해 직업 교육 기관에 보조금 제공(주문 방식)
 - +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직원을 위한 자사 직업 훈련 조직을 위한 자금 지원받음
 - + 라오까이성은 성 내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고용 서비스 센터에 지시하여 기업의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
- 동시에 현재 라오까이성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기업 지원 그룹을 설립하여 기업이 발전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
 - + 기업 관련 행정 절차 수행 시간 단축
 - + 투자, 생산 및 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 직접 해결 및 제거
 - +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등을 검토 및 수정
 - + 혁신 촉진, 투자·사업 환경 개선, 라오까이성의 투자 및 개발을 위한 자원 유치를 위한 조건 마련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라오까이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2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6.85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음

○ 한국계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한국투자는 2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0.82억 달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라오까이성에 투자한 8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라오까이성 내 10대 FDI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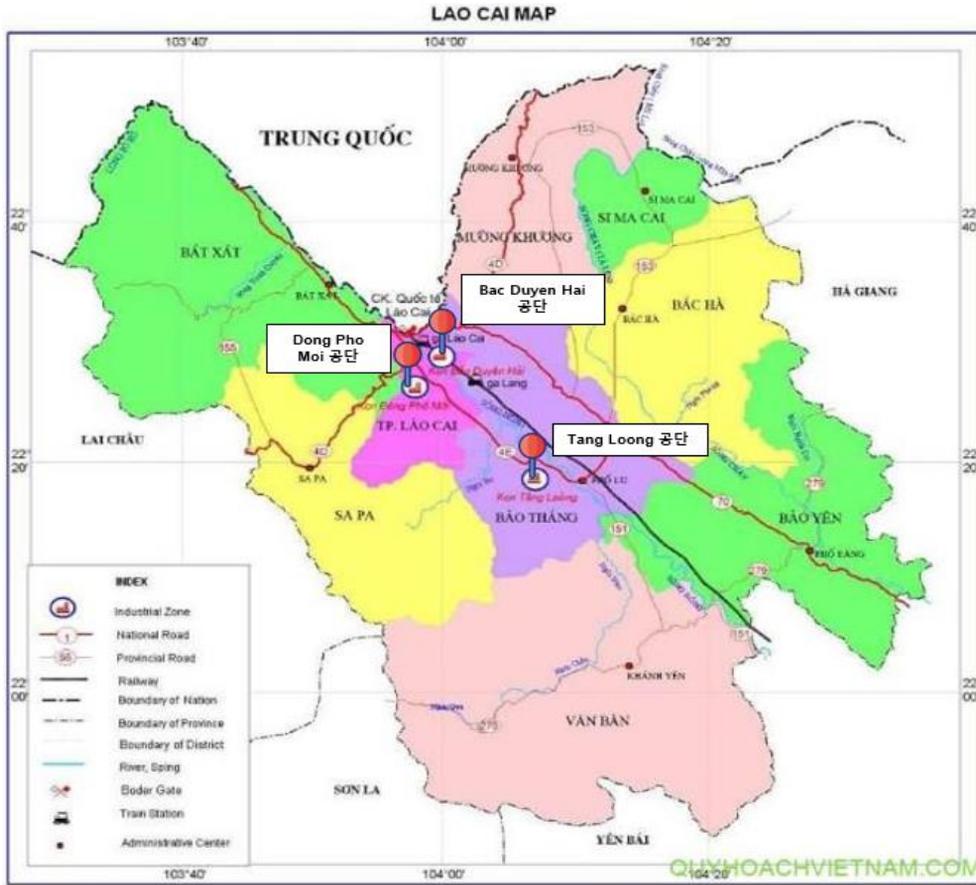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Laocai International Hotel Joint Venture Company	5성급 호텔 및 오락시설단지	싱가포르	84,172,000
2	Nexus Technologies and Cable Co., Ltd	첨단 전선 및 케이블 생산	한국	80,000,000
3	Lao Cai Renewable Energy (Viet Nam) Joint Stock Company	수력 발전소 건설, 전력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전기공사 유지보수 기술자문	싱가포르	48,000,000
4	V.C POWER CO., LTD	수력발전사업 투자 및 건설, 전기 생산 및 판매, 전기 생산 및 거래	중국	41,000,000
5	Leader Nam Tien Hydropower Joint Stock Company	응어이산(Ngoi Xan) 수력 발전 클러스터 프로젝트	싱가포르	23,600,000
6	GO! 라오까이 쇼핑몰(Viet-Nhat Real-Estate Joint Stock Company)	GO! Lao Cai 쇼핑몰	태국	13,100,000
7	Victoria Sapa Sole Member Company Limited	호텔	홍콩	7,000,000
8	EB Hai Phong Joint Stock Company	GO! Lao Cai 슈퍼마켓	태국	3,900,000
9	Topas Eco Lodge Co., Ltd	사파(Sa Pa) 생태관광단지 건설 사업	덴마크	3,300,000
10	Lisanten Industrial Co.Ltd	우롱차, 과일 나무 재배, 생산 및 가공	대만	2,100,000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주요 정보	투자자/개발사
1	라오까이 경제구역	2001	15,92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라오까이시, 바오탕(Bao Thang) 현, 밧삿(Bat Xat) 현, 므엥크엉(Muong Khuong) 현, 시마까이(Si Ma Cai) 현 • 투자유치분야: 다분야 • 정부가 투자하고 확장하고 있는 주요 국제 관문 경제구역 8개 중 하나임 • 5개의 기능 영역: 김타잉(Kim Thanh) 국제 관문 영역, 물류 서비스영역, 밧삿(Bat Xat) 현에서의 오락시설단지 및 골프장, 반과(Ban Qua) 가공, 생산 및 수출입 영역, 반프억(Ban Vuoc) 국경 관문 영역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인프라 투자자 환영)
2	박주우언하이 (Bac Duyen Hai)	2012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라오까이시 • 입주율: 89.8% • 투자유치분야: 수공업품 생산, 농산물 및 임산물 가공, 기계/가전 제품 생산 및 수리, 전자, 냉장 및 창고 등 	
3	동포머이 (Dong Pho Moi)	2009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라오까이시 • 입주율: 86.58% • 투자유치분야: 기계 조립 작업장, 전자 생산 및 조립, 농산물 및 임산물 가공, 창고 등 	
4	탕령 (Tang Loong)	2011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바오탕(Bao Thang) 현 • 입주율: 81.69% • 투자유치분야: 야금, 화학, 광물 추출, 기타 지원 산업 등 	



□ 투자 유망분야

- 심층 광물 가공 산업(특히 인회석)
- 관광 및 서비스
- 하이테크 농업
- 한국의 강점인 전자 및 자동차 산업

□ 라오까이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라오까이성 투자기획청	Mr. Phan Trung Ba 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214-384-0810 • Email: ptba-skhdt@laocai.gov.vn • Website: skhdt.laocai.gov.vn

<끝>



다른 FTA와의 비교를 통한 FCEP의 의의와 베트남 시장 진출 활용 전략 도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개요)**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체결 동향과 전세계적 메가 FTA 체결 흐름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CCEP이 등장함. RCEP의 활용 방안 구축을 위해 베트남이 체결한 다른 FTA의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 RCEP이 가지는 의의와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함.
- **(메가 FTA의 등장)** 국제 경제 동향 변화로 기존 양자 FTA 위주의 흐름에서 메가 FTA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 등장, 대표적으로 RCEP과 CPTPP가 있음.
- **(베트남의 체결 동향과 활용)** 베트남은 적극적인 FTA 참여로 RCEP, CPTPP 모두에 참여하였으며,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 중. 베트남이 참여한 FTA 중 AEC, EVFTA, CPTPP의 특징과 활용 동향을 조사하여 RCEP이 가지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함.
- **(RCEP의 의의와 특징)** 다른 FTA와 비교 시, RCEP은 관세 인하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관세 인하 혜택 이외에 중소기업, 정부 조달과 같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은 기존의 FTA보다 발전된 규범을 채택하고 있음.
- **(RCEP의 원산지 결정 기준)** 단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 체계와 누적 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EVFTA 및 CPTPP와 비교 시 원산지 결정기준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가짐.
- **(RCEP의 차별점 활용)** 다른 FTA와의 비교를 통해 RCEP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1) 단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한 기업의 원산지 관리 효율화, 2) 누적 기준 활용을 통한 원산지 상품 확대와 유의 사항, 3) 기존 양자 FTA에 비교해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활용한 양허 혜택 물품 확대의 진출 전략을 제시.



[다른 FTA와의 비교를 통한 FCEP의 의의와 베트남 시장 진출 활용 전략 도출](#)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내 보고서\(심층\)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원문 링크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12. 20 기준 누계		2022. 1. 1 ~ 1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534	80,969.64	416	1,118.85	4,879.01
일본	4,978	68,897.17	203	3,388.39	4,781.39
중국	3,567	23,348.82	283	1,356.53	2,518.01
싱가포르	3,097	70,846.16	280	2,120.23	6,455.01
대만	2,905	36,433.74	86	512.8	1,351.62
홍콩	2,164	29,492.77	134	1,101.22	2,223.88
미국	1,216	11,415.00	91	531.56	748.17
버진아일랜드(영)	888	22,382.22	25	192.72	607
말레이시아	702	13,060.40	38	9.29	185.18
태국	677	13,098.25	37	110.06	198.86
네덜란드	410	13,713.70	31	43.73	702.19
기타	6,140	55,034.42	412	1,960.85	3,067.81
합계	36,278	438,692.29	2,036	12,446.22	27,718.13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12. 20 기준 누계		2022. 1. 1 ~ 1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947	260,117.55	511	7,212.57	16,801.53
2	부동산경영	1,072	66,267.55	75	1,815.61	4,451.44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85	38,317.63	11	2,100.80	2,261.51
4	호텔, 외식서비스	928	12,679.18	33	7.55	11.44
5	건설	1,785	10,899.62	32	94.04	247.48
6	도소매, 유지보수	6,140	10,260.41	611	318.48	1,010.69
7	물류운수	986	6,170.57	72	356.32	438.91
8	채광	108	4,894.57	1	1.98	19.06
9	정보통신	2,689	4,919.06	241	182.86	655.23
10	교육, 양성	625	4,590.52	36	11.93	253.41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4,109	4,799.01	331	248.98	1,289.31
12	농, 임, 수산	525	3,850.11	12	29.6	67.96
13	예술 오락	140	3,418.60	1	0.2	3.85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3	3,035.78	3	1.85	57.3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752.98	2	10.43	21.16
16	행정, 지원 서비스	563	1,038.92	54	23.52	63.67
17	금융, 은행, 보험	88	945.05	8	29.2	57.7
18	기타서비스	145	724.12	2	0.3	5.92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0.55
	합계	36,278	438,692.29	2,036	12,446.22	27,718.13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12(누계)
수 출	2,641.8	2,826.5	3,363.1	3,713.0
수 입	2,530.7	2,627	3,322.3	3,389.0
무역수지	111.1	199.5	40.8	324.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12(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57,994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55,536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45,751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37,566
신발류	18,320	16,791	17,751	23,895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16,011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7,993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11,988
수산물	8,543	8,412	8,886	10,923
원사(Yarn)	4,176	3,736	5,612	4,713
기 타	71,332	74,235	87,379	98,934
합 계	264,189	282,654	336,310	371,30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12(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81,884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45,19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21,126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14,706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12,387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11,920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9,253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8,119
화학제품	5,419	5,741	7,627	9,144
화학물질	5,128	5,016	7,735	8,747
기 타	95,110	92,412	119,600	136,423
합 계	253,070	262,700	332,234	358,90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12(누계)
1	미국	47,526	61,347	77,077	96,293	109,388
2	중국	41,268	41,414	48,905	56,009	57,702
3	한국	18,205	19,720	19,107	21,945	24,293
4	일본	18,851	20,413	19,284	20,128	24,232
5	홍콩	7,955	7,156	10,437	11,996	10,936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10,430
7	독일	6,869	6,555	6,644	7,286	8,968
8	인도	6,542	6,674	5,235	6,259	7,961
9	태국	5,494	5,272	4,917	6,161	7,476
10	영국	5,776	5,758	4,955	5,765	6,065
	기타	77,921	82,999	79,094	96,782	103,853
	합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371,30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12(누계)
1	중국	65,438	75,452	84,187	109,874	117,866
2	한국	47,497	46,935	46,895	56,155	62,088
3	대만	13,228	15,173	16,701	20,772	22,631
4	일본	19,011	19,526	20,341	22,648	23,373
5	미국	12,753	14,365	13,713	15,270	14,470
6	태국	12,023	11,656	10,968	12,564	14,092
7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10,144
8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9,124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9,641
10	인도	4,147	4,538	4,435	6,950	7,086
	기타	46,238	47,975	48,826	64,320	68,386
	합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358,90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2(누계)
수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60,972(7.5)
수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26,726(11.5)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34,246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12(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16,240(15.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12,527(4.0)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3,733(222.3)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2,581(6.9)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2,358(-29.2)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2,194(-8.8)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1,168(26.4)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1,069(-15.6)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1,067(-9.2)
기타기계류	877(-38.6)	842(-3.9)	686(-18.6)	717(4.5)	815
기타	16,571	16,619	15,420	17,279	17,220
합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60,972(7.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12(누계)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5,986(7.3)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3,840(13.2)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1,948(19.1)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1,250(27.2)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970(33.8)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942(24.8)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787(5.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783(-10.5)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654(4.8)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463(0.7)
기타	6,164	6,331	6,474	8,161	9,103
합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26,726(11.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2년(연간)	%	3.8*	7.6	N/A	N/A	8.0	
	2022년 3Q	%	4.1	7.6	14.2	5.7	13.7	
	2022년 4Q	%	2.2*	7.0*	N/A	N/A	5.9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N/A	N/A	N/A	N/A	7.8%*
		2022년 10월	-	N/A	11.0	129.8	N/A	6.3%
		2022년 11월	-	N/A	10.0	131.1	N/A	5.3%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2년(연간)	-	N/A	N/A	N/A	N/A	N/A
		2022년 10월	-	49.7	52.6	119.3	51.8	50.6
		2022년 11월	-	49.8	52.7	120.0	50.3	47.4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2년(연간)	-	N/A	N/A	N/A	N/A	N/A
		2022년 10월	-	109.9	N/A	N/A	120.3	N/A
		2022년 11월	-	111.0	N/A	N/A	119.1	N/A
	소매판매	2022년(연간)	-	N/A	N/A	N/A	N/A	19.8%
		2022년 10월	-	N/A	N/A	169.4	3.7%	17.1%
		2022년 11월	-	N/A	N/A	169.7	1.3%	17.5%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N/A	N/A	N/A	N/A	3.2
		2022년 10월	%	6.7	6.9	4.0	5.7	4.3
		2022년 11월	%	6.7	8.0	4.0	5.4	4.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2년(연간)	%	N/A	N/A	N/A	N/A	△11.0(누계)
		2022년 10월	%	N/A	N/A	N/A	N/A	△5.4(누계)
		2022년 11월	%	N/A	N/A	N/A	N/A	△5.0(누계)
고용	실업률	2022년(연간)	%	N/A	N/A	N/A	N/A	2.3
		2022년 3Q	%	2.0	5.2	3.7	5.9	2.3
		2022년 4Q	%	1.9	4.2*	3.6*	N/A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2년(연간)	%	N/A	N/A	N/A	N/A	7.1
		2022년 10월	%	20.1	7.5	15.0	11.9	4.5
		2022년 11월	%	6.3	△1.9	15.6	5.6	△8.4
	수입증가율	2022년(연간)	%	N/A	N/A	N/A	N/A	8.6
		2022년 10월	%	21.4	20.0	29.2	17.4	7.1
		2022년 11월	%	11.1	13.2	15.6	△1.9	△7.3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